

# ISSUE & FOCUS

Newsletter 2017-2

## 2017 정치·정책 환경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2017 정치·정책 환경은 예년보다 불확실성이 높다. 국외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보호무역 강화전망에 기인한 통상정책의 불안정성과 미중 갈등의 심화에 따른 영향, 대북 문제에 대한 강경책 여부 등을 속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전망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외환경을 보면 세계 질서 재편과정에서 혼돈과 갈등을 유발하면서 동아시아 질서 역시 변화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취임 10일 동안에 대선전에서 약속한 공약을 밀어붙이면서 국내외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시작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공들여 이루어 놓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퇴였다. 이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설치, 반이민법 시행을 발표했다. 전 통 우방인 멕시코와는 국경장벽 설치로 유럽과는 반이민법 시행으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슬람국가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민으로 세운 나라가 이민을 막음으로서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성토했고 있다.

트럼프의 밀어붙이기 행보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미중관계이다. 미중간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미국은 군사력 재건을 명분으로 군비경쟁을 유발하면서 사이버 분쟁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전망이다. 중국과 필리핀 등 7개국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에 대해서도 중국견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핵심사항으로 여기는 하나의 중국문제에 대해서도 대만을 인정하려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중국을 흔들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불공정 무역과 환율조작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면서 경제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서 중국 포위 전략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 추세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 영국의 EU탈퇴가 대표적 사례이다. 금년에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국 우선주의는 국제협약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미국의 탈퇴는 각국의 지금까지 저탄소화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국내 정치·정책 환경 역시 세계적 트렌드와 무관하지 않다. 경제성장의 이념이었던 근대화의 종언에 대체하는 새로운 이념 부재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요동을 칠 것이다. 탄핵인용 시에는 2개월 이내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지만 각각 시에는 대통령이 명예회복으로 정치일정을 밝힌 후 사임하면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기까지 재임하려는 경우에는 여야 극한대립과 사회적으로도 대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개정 논란도 뜨거운 감자이다. 나라발전보다 자기 이해중심의 권력개편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협치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국회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리더십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능력과 덕목을 겸비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부재는 세기의 대변혁 와중에서 지도자의 부재로 외교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안보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국민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 생각해야 할 대선주자들은 심지어 사드와 같은 북핵에 대응한 무기배치까지 쟁점화 하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해 우리 스스로 방어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동맹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안보문제까지 정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안보의식까지 약화되고 있다.

중첩된 사회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인구절벽의 문제는 위기의식보다 과밀화된 인구밀도를 조정하는 방향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야기되는 역피라미드 인구구조 문제도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임을 고려하여 삶의 질향상과 가족공동체의 복원을 통한 접근이 바람직하다. 단기적 처방으로는 여성과 노인인력의 적극 활용을 위한 정책개발과 실행이 중요하다. 저성장·양극화 문제 역시 구조적인 문제임을 유념하여 중장기적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고용유발의 경제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선도 여부가 미래 우리경제의 발전을 결정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다시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미래의 과제이지만 현재의 과제이기도 하다.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핵개발을 비롯한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은 탈북민의 증가와 엘리트층 동요의 내부 갈등으로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UN을 비롯한 국제적 압력도 이런 현상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통일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 사업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다.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교롭게 금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빠르면 상반기에 아니면 하반기에 대통령을 뽑게 되어있다. 국민은 이번 탄핵심판을 겪으면서 지도자가 왜 중요한지를 배웠다. 세계의 흐름을 읽고 국내적으로 산적한 난제를 풀어가는 비전과 전략을 가진 지도자를 원한다. 인재를 비선에 의존하여 발탁하기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널리 구하면서 발탁한 인재에게는 권한을 주고 그 결과에 책임지게 하는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